

ISSUE BRIEFING 2018 & FINDING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10.25 vol.183

[www.jthink.kr](http://www.jthink.kr)

연구진  
김동영 연구위원

#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10.25 vol.183

## CONTENTS

###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I. 청년세대의 로컬지향	4
1. 워라밸과 장소고유성	4
2. 전북청년의 로컬지향 의미	5
II. 창조적 인재가 모이는 지방 “가미야마”	9
III.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10
1. 4개 유형별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11
2.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12
3. 5G빌리지 구축	13
4. 디자인싱킹 기반 서비스 디자인 레퍼런스 개발	13
5. 출장소기업 콤플렉스 조성	14
6. 도시재생과 연계추진	15



9 772508 688004 01  
ISSN 2508-688x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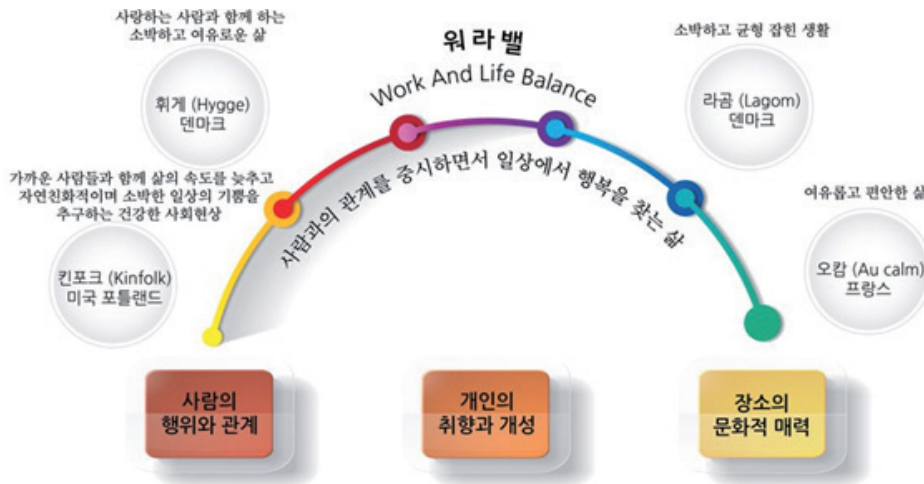
- 최근 국내외에서는 도시에서의 바쁜 직장생활대신 유연하게 일을 하며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향하거나 아예 지방에서 창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도쿄에서 600km 떨어진 도쿠시마현의 가미야마정은 인구가 1995년 2만 1,000명에서 2010년대 들어 6,000명으로 줄어든 과소화마을이었으나 최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일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30세 전후의 IT분야 이주자(200여명, 거주인구의 2.5%)들이 늘면서 2011년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
- 전라북도에서도 최근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면서도 관계를 중요시하며 본인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고유성을 갖기를 원하고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에 관심 있는 등 가치추구 성향을 보이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기술, 전통적 삶과 젊은 감성이 융합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일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청년세대들을 전통문화와 자연생태의 강점이 있는 전라북도로 유치할 수 있는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시범모델 사업 제안
-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업무의 장소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첨단기술, 미래형 인재 등이 집적한 스마트한 업무환경과 유연한 근무시간, 자연친화적 생활, 지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등의 슬로우라이프 여가환경이 결합된 지역으로 정의
-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은 첫째, 청년들의 로컬지향 가치추구 성향을 중심으로 농업형, 사회적경제형, 장소기반산업형, 첨단산업형 4개 유형으로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시군(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 순)을 우선대상으로 조성
- 둘째,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시군 및 읍면동에 있는 유휴공간 조사 및 리모델링 지원, 입주희망 청년과 빈집 연결, 적합한 기업 및 인재 유치, 슬로우라이프 교육 및 실행 등의 역할 수행
- 셋째,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무선통신서비스가 가능한 5G시범업체인 KT 또는 도내 기업인 효성ITX 등과 연계하여 5G빌리지 조성
- 넷째, 4개 유형에 따른 지역별·주체별 합리적이고 높은 만족 수준의 문제 해결 솔루션 제공을 위해 디자인싱킹 기반의 서비스 디자인 레퍼런스 모델 개발
- 다섯째, 스마트환경과 슬로우라이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출장소를 유치하고 출장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 여섯째, 빈집이나 빈점포의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및 창업공간으로 제공하여 도시재생과 청년유입을 연계하는 전략 추진

# I. 청년세대의 로컬지향

## 1. 워라밸과 장소고유성

-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미국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키포크문화로부터 출발
  - 키포크문화는 포틀랜드 주민인 윌리엄스부부가 이웃, 친구들과 함께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건강한 식재료를 요리를 해 나눠먹는 소소한 일상을 담은 '키포크(kinfolk)'라는 잡지에서 유래했으며, 현재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연친화적이며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현상이라는 의미로 통용(columbia korea, 2016)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키포크 문화가 2014년 초부터 20~30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다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주52시간 근무도입 등 일과 삶의 균형정책을 강조하면서 워라밸 라이프스타일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
-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은 덴마크에서는 휴게(hygge), 스웨덴에서는 라곰(lagom), 프랑스에서는 오캄(au calme) 등 나라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음

〈그림 1〉 워라밸 개념도



자료 1) columbia korea, 2016 2) <http://www.nocutnews.co.kr/news/4952300>

- 물질적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와 관계에 집중하는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의 취향소비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생산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산업입지가 아닌 장소의 고유성을 중시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의한 유행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부상(김용섭, 라이프 트렌드 2016)
- 미국에서는 독립적인 생산자가 자신이 직접 키운 농산물로 식품을 만드는 아티자날 운동(artisanal movement)이 등장하면서 개인 취향에 특화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확산(Chris Anderson, 2013)
- 취향소비와 자연친화적이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직접 상품을 만드는 현상이 결합되면서 전통적 입지인자보다는 장소고유성을 중시
- 컴퓨터와 생산기계가 통합되면서 물류와 교통 등의 산업적 장소제약은 약해지고 사람, 관계, 그리고 문화와 환경 등 장소의 문화적 매력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동
- 일본에서는 도시에서의 직장생활대신 유연하게 일을 하며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향하거나 아예 지방에서 창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도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청년세대들이 유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2. 전북청년의 로컬지향 의미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내에서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17명의 청년들의 활동을 인터뷰 조사한 ‘청년발자국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전북을 찾는 청년들은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귀농귀촌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어려움들을 조사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정착동기, 일과 생활, 네트워크 공간, 지역 내에서의 관계, 필요한 지원과 필요한 네트워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발자국 프로젝트 추진
- 전북을 찾는 청년세대들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추구,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추구, 지역적 자원에 기반 한 장소기반산업추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첨단업종추구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농업에 종사하고자 지방을 찾는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단순한 농업생산자를 넘어 농업생산 과정의 의미부여, 가공을 통한 식품제조, 장소에 기반 한 서비스까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문화와 예술적 재능을 주민들과 결합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
  - 장소기반산업을 추구하는 청년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지역의 이야기나 공예와 같은 전통이나 자연환경 등을 활용해 오리지널리티를 경쟁력으로 상품생산이나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

- 현재 전라북도 내에 첨단업종 추구 성향의 청년들은 많지 않지만 농업에 ICT를 결합하거나 전통공예에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전북청년의 로컬지향 의미



● 전북창조경제센터의 ‘청년발자국 프로젝트’에 의해 발굴된 대표적 청년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음



**카페인 없는 커피콩**

김지용씨는 조선대 영어과를 그만두고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돈을 벌기위해 영농조합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농산물관련 사업에 매력을 느껴서 공시준비를 포기하고 한농대를 입학했습니다.

현재는 작두콩을 이용해 카페인이 없는 커피콩을 개발하였고 출시에 앞서 브랜딩과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관 달려처럼 농업인을 모델로 하는 달려를 만들어 팔아서 기부를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 목공예 사회적기업

권순표씨는 27살에 시티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9살 때 캐나다에 가기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캐나다에서 우연히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적 경제에 눈을 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형님에게 배운 목공기술을 활용해 목공방을 열고 원광대 사회적경제학과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목공방이 사회적기업이어서 다문화 여성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요즘 관심은 오토마타입니다. 기존 오토마타 기술에 이야기가 결합된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꿈은 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함께 세계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 잡지발간

이유진씨는 지인의 소개로 산내면과 인연이 닿았고 남편과 함께 귀촌을 한 여성운동가입니다. 산내에 와서 '지글스(지리산에서 글 쓰는 여자들)'라는 잡지를 발행했고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내에는 자발적인 동아리가 50개가 넘는데 대부분 귀농귀촌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귀농귀촌 역사가 오래되다보니 외지인과 원주민을 구분짓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산내에 정착할 때 어려모로 힘들어도 그래도 산내여서 그나마 민주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고요.



### 영화제 개최

윤지은씨는 2017년 2월에 친구 진남현을 따라 완주로 귀촌했습니다. 고향은 인천이고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재미있는게 없을까 생각하다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너멍골)에서 작게 영화제를 열었습니다. 불편함을 컨셉으로 두고 자유롭게 시작한 영화제는 올해 완주군에 지원을 받아 조금 더 풍성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멍골 영화제는 13명의 친구들이 함께 준비하는데 2명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입니다. 현재 이서와 고산에서 청년거점공간을 기획하고 있고 완주로 귀촌한 청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청년발자국 프로젝트’를 통해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전북의 청년들은 농업가치, 사회적가치, 장소기반가치, 첨단기술가치 등을 추구하면서 기존방식과는 다른 일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 도시에서 생활하다 지방으로 향한 이들은 소득은 도시보다 부족해도 “땀 흘린 만큼 벌 수 있고”, “도시에서 비염을 앓던 아이의 병이 낫고”, “친구들과 별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다는 공통점이 있음(경향신문, 2018. 3. 22)<sup>1)</sup>
- 또한 관계를 중요시하며 본인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고유성을 갖기를 원하며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에 관심 있는 등 가치추구 성향과 자연과 전통이 주는 삶의 풍요로움을 동시에 공유하고자 하는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

1) 순창 들녘에 울려 퍼진 귀촌 청년농부 13명 ‘희망가’

## II. 창조적 인재가 모이는 지방 “가미야마”<sup>2)</sup>

- 가미야마는 도쿄에서 600km 떨어진 도쿠시마현의 인구 6,000명의 작은 마을로 1995년에는 2만 1,000명이었으나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한 전형적인 과소화 지역
- 하지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일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30세 전후의 정주자들이 늘면서 2011년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200여명(거주인구의 2.5%)이 이주하였으며 대다수가 IT분야 종사자
- IT벤처를 비롯한 12개 회사가 ‘위성사무실(satellite office)’을 설치하거나 아예 이곳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명함관리 IT벤처기업 “산산”

도쿄 시부야에 본사가 있는 명함관리 IT벤처기업 산산(Sansan)은 2013년 가미야마에 위성사무실을 냈고 현재 30대 초반의 두 명이 상주하고 있다. 두 사람은 리노베이션된 집의 별채에서 일한다. 아침과 저녁, 본사와 인터넷으로 하는 회의 외에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기분 전환 삼아 뒤뜰의 텃밭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나무로 둘러싸인 그물 침대에 누워 일을 보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차를 대접하기도 한다. 일은 인터넷 세상에서 하면서도 밝은 현실세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산산의 일하는 방식은 가미야마에 내려와 상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방식, 팀이 단기간 체류하는 방식, 합숙 형식 등 가미야마의 사무실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 도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참신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 있다.

「로컬지향의 시대」 pp.39-42

### 영상편집회사 “플랫폼즈”

가미야마 위성사무실에서 스무 명이 일하는 ‘플랫폼즈(Plat-Ease)’는 영상을 편집하는 회사다. 영상업계는 2009년 무렵부터 편집방식이 혁신돼, 인터넷에서도 대용량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됐다. 회장인 스미타 데쓰는 위성사무실 유치 작업을 벌이던 지역을 찾다니며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크리에이터들이 모여드는 마을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불쑥 가미야마를 찾았다. 그린베레의 도움을 받아 2010년 낡은 고택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도로변에 접한 건물 벽은 유리로 리모델링했다.

대용량 영상 데이터 편집 분야는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백업기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플랫폼즈는 헛간을 서버 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은 잠시 시간이 나면 그 헛간 옆에서 장작을 팬다. 이처럼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기술, 전통적 삶과 젊은 감성이 융합돼 장소의 ‘고유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폐쇄된 건물에서 일하는 것과는 180도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즈는 자연과 전통과 창조산업을 하나의 공간에 융합시킨 독자적인 업무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다.

「로컬지향의 시대」 pp.43-45

2) 마쓰나가 게이코의 「로컬지향의 시대」 제1장 ‘지역 간 차이가 사라진다’ 참조하여 요약정리



- 가미야마의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NPO법인인 「그린베레」는 위성기업이나 창업자들에게 빈집을 제공하는 등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
  - 초기엔 해외의 아티스트들이 찾아와 머물게 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분야 전문가의 '워크 인 레지던스'로 시작하여 기업지원, 고택재생, 빈점포 부활 등 자신들이 원하는 점포나 사람을 유치하고 이를 담당할 인재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성장
- 인구가 줄고 있는 있지만 창조산업과 생활분야의 많은 인재들이 도시와는 다른 풍요로운 자연과 전통을 제공하는 지역 공간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환경이 만들어짐
  - IT분야 종사자들이 개발자나 디자이너 등 관련분야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음
- 가미야마에는 창조적 인재들을 위해 일하며 잘 수 있는 공간인 "워크 가미야마(Week Kamiyama)"와 위성사무실의 공동사무공간인 "가미야마 밸리 위성사무실 콤플렉스(Kamiyama Valley Satellite Office Complex)" 등이 있음
  - 워크 가미야마는 더블룸 2개, 트윈룸 4개, 그룹 2개까지 총 8개의 방이 있으며 더블룸 기준 1일 숙박에 7,500엔이며, 머무는 이들이 다 같이 먹는 저녁식사 이벤트가 특징(<https://ppss.kr/archives/117185>)
  - 위성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인 위성사무실 콤플렉스는 봉제공장을 리노베이션 한 것으로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용료는 기업이나 그룹은 월 3만엔, 개인은 월 7,500엔, 창업하려는 스타트업은 월 1만엔으로 칸이나 벽이 없는 개방형 공간



Week Kamiy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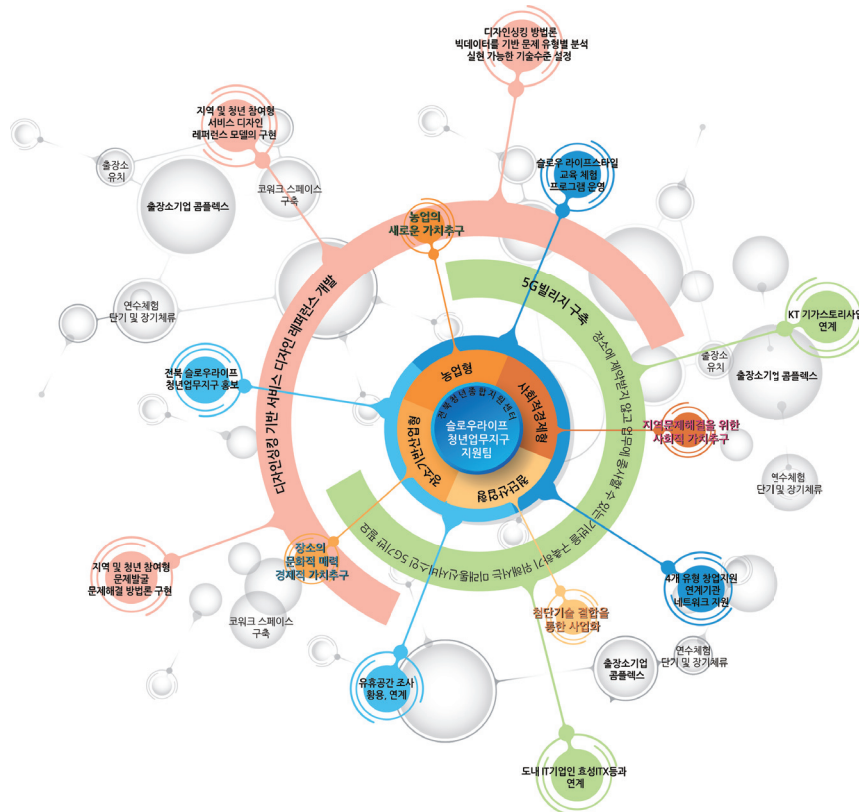
Kamiyama Valley Satellite Office Complex

자료: <https://ppss.kr/archives/117185>

### III.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 전북인구 감소가 청년층의 유출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필요
- 본인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고유성을 갖기를 원하며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에 관심 있는 등 가치추구 성향을 보이면서 전통적 삶과 자연환경에 융합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청년들이 일하며 거주할 수 있는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시범조성 필요
-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업무의 장소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첨단기술, 미래형 인재 등이 집적한 스마트한 업무환경과 유연한 근무시간, 자연친화적 생활, 지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등의 슬로우라이프 여가환경이 결합된 지역으로 정의
- 전북의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을 연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새로운 유형의 슬로우라이프가 결합된 일하는 모델 조성 필요

〈그림 3〉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개념도



## 1. 4개 유형별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 지방으로 향하는 청년들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추구,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추구, 지역적 자원에 기반 한 장소기반산업추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첨단업종추구 등으로 구분
  - 이들 청년들은 유연한 관계를 통해 상호연대는 물론 서로를 통해 창조적 자극받기를 원함
- 관심분야가 유사한 사람들의 정서적 연대가 가능한 심리적 거리 내에 농업형, 사회적경제형, 장소기반산업형, 첨단산업형 4개 유형의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시군(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 순)을 대상으로 4개 유형별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표 1〉 전라북도 지방소멸 위험지수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39세 여성	65세이상	소멸위험지수
전주시	24,320	18,456	21,030	23,823	87,629	78,634	1.11
군산시	7,527	6,033	8,487	9,447	31,494	39,709	0.79
익산시	10,820	7,191	8,147	9,418	35,576	45,842	0.78
정읍시	2,369	1,981	2,283	2,900	9,533	26,742	0.36
남원시	1,595	1,428	1,619	2,197	6,839	19,901	0.34
김제시	1,651	1,535	1,621	1,867	6,674	23,682	0.28
완주군	2,636	1,959	2,874	2,984	10,453	17,823	0.59
진안군	308	344	448	426	1,526	7,572	0.20
무주군	377	353	453	548	1,731	7,110	0.24
장수군	323	340	379	467	1,509	6,488	0.23
임실군	405	428	467	464	1,764	8,903	0.20
순창군	423	442	501	566	1,932	8,740	0.22
고창군	861	972	982	1,048	3,863	16,988	0.23
부안군	885	852	981	1,091	3,809	15,418	0.25

자료: 시도연구원 협의회, 2017

- 경상북도는 저출산문제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가장 소멸지수가 높은 의성군에 일자리와 주거단지, 복지체계를 갖춘 '청년마을' 조성 예정
  - 단기로 농업창업과 문화예술 창업을 지원하고, 장기로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
  - 자본, 기술, 연고가 없는 청년들이 농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팜 20개 동 조성 후 임대예정
  - 조각, 공예 분야 청년을 위해 공장식 작업창고와 창업지원시설 건립
  - 2022년까지 물류센터, 저장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춘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식품가공업체 유치계획

- 경북개발공사는 20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00가구를 조성하여 임대료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1~2인용 주택을 제공할 예정
- 기존 시행하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청년 커플 창업지원,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확충 등도 시범마을과 연계추진

## 2.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

- 전라북도도는 청년들의 취업, 창업, 문화, 복지 등 전 과정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북 청년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예정
- 전북 청년종합지원센터 내에 전라북도의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와 지원업무를 주관할 중간지원조직으로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지원팀 구성 및 운영
-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지원팀은 시군 및 읍면동에 있는 유희공간 조사 및 리모델링 지원, 입주희망 청년과 빈집 연결, 적합한 기업 및 인재 유치, 슬로우라이프 교육 및 실행 등의 역할 수행
  - 전북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의 일하는 방식의 강점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기업과 인재를 유치
  - 유희공간 및 빈집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업에 연계
  - 지역의 전통이나 자연환경과 결합된 슬로우 라이프스타일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농업형, 사회적경제형, 장소기반산업형, 첨단산업형 4개 유형에 맞는 창업지원 및 연계기관 네트워크 지원

〈그림 4〉 중간지원조직(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지원팀)의 역할



### 3. 5G빌리지 구축

- 로컬지향 청년들은 컴퓨터와 생산수단을 결합하거나 생산품을 인터넷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등 인터넷 기반의 업무와 생활방식이 일상화 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특히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통신서비스인 5G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통신부는 기가코리아사업단과 함께 2018년 5G융합 서비스 시범사업에 233억원을 투입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실증사업을 추진 중
  - 자율주행 시범서비스는 KT컨소시엄이 주관하여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판교제로시티, 대구시 수성 알파시티 등에서 추진
  - 스마트팩토리는 SK텔레콤 주관으로 세플러안산, 명화공업 등에서 추진
  - 재난안전분야는 KT주관으로 강원릉 중심으로 실증사업 진행 중
  - 실감미디어분야는 SK브로드밴드가 주관하고 SK텔레콤이 참여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 평창 의야지마을에 5G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
  - KT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기가 스토리’의 연장선으로 의야지마을은 임자도, 대성동마을(DMZ), 백령도, 청학동, 교동도에 이어 국내 여섯 번째 기가 스토리의 주인공
-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를 KT의 기가스토리사업과 연계하거나 도내 IT기업인 효성ITX등과 연계하여 시골이지만 국내 최고의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한 5G 빌리지로 조성

### 4. 디자인싱킹 기반 서비스 디자인 레퍼런스 개발

- 기존지역을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적 요소 해결 필요
  - 스마트 커뮤니티 구성을 지역 주민, 빅데이터 및 디자인싱킹 전문가, 전북청년 종합지원센터(설치예정) 으로 하여 각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필요
  - 원래 커뮤니티란 같은 사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형성된 것에서 영토의 제약을 벗어나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같은 사상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커뮤니티의 관계 필요성에 대한 니즈를 채우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관계그룹(지방정부, 공기업, 사기업,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이 지역운영에 관여하는 통합 가상 집합체로서 도시모형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
  - 구성 요소간 상호관계를 모형화 함으로써, 표준화에 있어 취약점 또는 중복/차별화 나는 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들의 명확한 파악이 요구됨

-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관련 요소기술은 분야별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술적, 사회적, 행정적으로 방해요인들이 존재하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수 존재
- 농업형, 사회적경제형, 장소기반산업형, 첨단산업형 4개 유형에 따른 디자인싱킹 기반의 서비스 디자인 레퍼런스 모델 개발
  - 합리적이고 높은 만족 수준의 문제 해결 솔루션 제공을 위해 디자인싱킹 방법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유형별 분석 및 실현 가능한 기술수준 설정
  - 수요자 요구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및 청년 참여형 서비스 디자인 레퍼런스 모델의 구현
  - 지역의 빅데이터와 디자인싱킹 방법론을 연계한 지역 및 청년 참여형 문제발굴 및 문제해결 방법론 구현
  - 이에 대한 문제발견,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싱킹 활동이 내면화 되어야 함

〈그림 5〉 문제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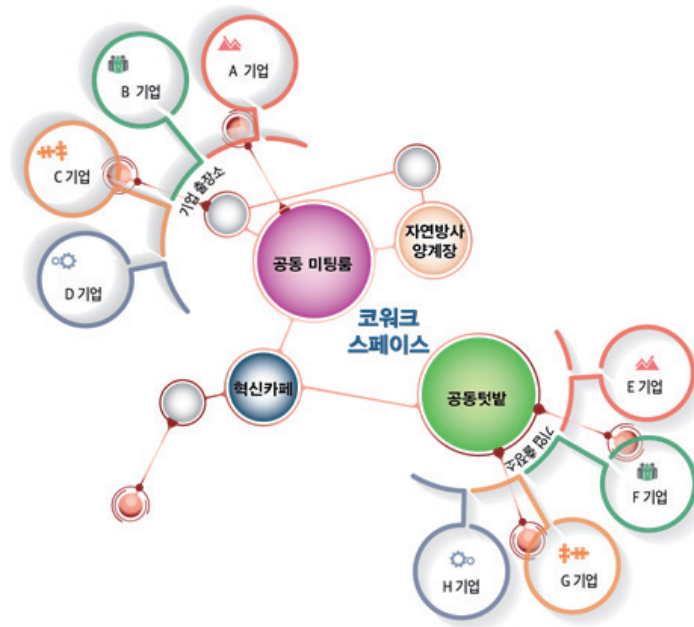


### 5. 출장소기업 콤플렉스 조성

-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연친화적이며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슬로우라이프와 일을 결합함으로써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출장소 유치
- 유치대상 기업들에게 팀이나 개인별로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연수체험, 단기 및 장기체류 등으로 구분하여 유치하여 궁극적으로 출장소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 출장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공동 미팅룸, 혁신카페, 공동텃밭, 자연방사양계장, 야외 산책로 등을 조성

- 지역 전통이나 자연환경을 즐기면서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과 생활이 융합된 슬로우라이프 업무공간으로 조성
-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리모델링하여 지역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조성

〈그림 6〉 출장소기업 콤플렉스



## 6. 도시재생과 연계추진

- 지역쇠퇴에 따라 빈집과 빈점포가 사회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유입과 이를 연계하는 전략 필요
  -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빈집은 전국 1,264,707호로 전체 주택의 7.4%인 반면 전라북도는 77,631호로 전북주택의 11.1%에 달함
  - 전통시장 빈점포 또한 전국 18,807개로 9%로 차지하고 있고 전북은 477개로 9.1%를 차지
- 청년들에게 양호한 공가나 공점을 리모델링해서 저가임대, 장기 무상임대 등을 통해 주거 및 창업공간으로 제공
- 도시재생을 통하여 빈집과 마을환경을 정비하여 청년네트워크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제공하여 청년유입을 촉진
- 도시재생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선순환의 기능부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